

## 질문으로 하는 성경공부: 룻기

### 1. 룻기 1 장

- 1) 관찰질문: 아비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해석질문: 남편과 아들 둘이 다 죽은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친정에 돌려보내려고 설득하며 “내 뱃속에 아들이 들어 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나?”(1:11)는 말을 했는데 그 당시 어떤 풍습을 말하는 걸까요?
- 3) 적용질문

#### 3.1 먼저오심:

- a.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룻은 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마음 먹었을까요?
- b. 당신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신지를 일깨워 주신 분이냐 사건이 있으면 나누어 주십시오.

3.2 만나주심: 룻은 시어머니의 겨레가 자신의 겨레이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언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셨나요?

3.3 다듬으심: 룻이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 이방인을 배척하는 유다 땅으로 가는 것 대단한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오르바는 제 친정으로 돌아 갔으니, 너도 너의 겨레와 신에게로 돌아 가라 할 때 룻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확고해집니다. 당신이 주님을 따라 가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과정에 당신을 좌절시키려는 유혹을 대면한 적이 있습니까? 그 때 경험했던 마음의 상태와 결단을 내리게 된 과정을 나누어 주십시오.

3.4 들어쓰심: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로 결단한 후 당신의 삶에도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타인을 섬기는 삶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4) 삶의 현장: 나오미(즐거움, 유쾌함이라는 뜻)이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고통, 쓰라림이라는 뜻) 라고 부르십시오.’ 라고 하며 모압땅으로 떠날 때는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텅 비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 왔노라며 회개와 겸손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처분을 겸손히 수용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사람들 앞에 솔직한 모습의 나오미를 보며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솔직히 자신의 잘못과 약함을 인정하며 사는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 2. 롯기 2 장

1. 관찰질문: 롯기 2 장은 영적 흉년의 시대, 사사시대, 불경건한 사회 속에 살았지만 경건함으로 구별된 보아스를 조명합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 해석질문: 보아스는 하인들에게 이삭을 추수할 때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는 말을 합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에서 그의 어떤 면을 알 수 있습니까?

### 2. 적용질문

3.1 먼저오심: 롯은 보리추수때가 되어 밭에 나가 이삭줍기를 합니다. 그가 일하러 간 곳은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미처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환경이나 은인을 만난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3.2 만나주심: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그를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2:20).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러운 칭호입니까? 궁극적으로 이 칭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당신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까?

3.3 다듬으심: 롯이 살던 사회는 불경건한 사회였고 그 시대는 영적으로 퇴락한 시대, 즉 영적 흉년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사사시대 같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와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3.4 들어쓰심: 우리가 살아 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혼돈하고 사사시대처럼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는 영적 빈곤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핑계를 댁니다. 그러나 롯기는 영적빈곤의 시대에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점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4. 삶의 현장: 우리 주변에 있는 롯이나 나오미 같은 과부, 이방인, 가난한 자들을 당신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속한 교회나 소그룹은 어떻게 저들을 돕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 일어나야 될까요?

### 3. 룯기 3-4 장

1. 관찰질문: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 갈 무렵 나오미가 룯에게 한 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2. 해석질문:

a. 룯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3:9)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b. 룯이 한 행동에 대해 보아스는 룯이 가룩한 마음씨를 보여 주었다 (3:10,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고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3. 적용질문

3.1 먼저오심: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무를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기업무름은 하나님이 가족의 이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유지되도록 예비하신 은혜의 제도였습니다. 당신은 어떤 전통이나 제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3.2 만나주심: 룯은 보아스라는 은인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을 이어 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의 자손들을 낳는 영적 어머니가 되었는지 나누어 주십시오.

3.3 다듬으심: 기업을 물려 달라고 요청하는 룯에게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에게 먼저 기업무를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결과를 기다리는 룯의 마음을 어땠을까요? 과연 누가 그의 남편이 될까요? 중요한 결과를 기다리며 초초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3.4 들어쓰심: 하나님의 은혜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룯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믿음의 가보를 이어가서 그를 통해 메시아가 탄생하는 역사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이루어 졌나요?

4. 삶의 현장

a. 두 과부밖에 남지 않은 퇴락해 가는 아비멜렉 가문의 기업무를 자가 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희생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방여인 룯과 결혼을 하는 것은 사회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두 과부를 책임질 때 발생하는 어떤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과부에 대한 연민과 그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의 정신을 보여 주었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고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며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b. 또한 보아스는 독단적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고 모든 분쟁과 다툼의 소지를 깔끔히 처리하는 열심을 보입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깔끔히 처리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